

맛있는 산수 **광주신세계갤러리 하루.K 展**

광주신세계갤러리가 24일부터 10월20일까지 작가 하루.K(본명 김형진)를 초청해 '맛있는 산수'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2013년 제15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작가 하루.K의 초대 개인전이다.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지원하고자 199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공모전이다.

동양화를 전공한 하루.K는 동양화의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산수를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산수화에 '음식'이라는 소재를 배치해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꾸며내며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도 전통 산수화 기법을 따르고 있지만 곳곳에 바닷가재, 피자, 장어구이, 햄버거 등이 등장해 재미와 해학을 더했다.

하루.K는 홍익대 미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 의재문화재단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개인전 6회 등을 열었다.

한편, 신세계갤러리는 전시 기간 중



'Delicious Scape'

10월 3~4일, 10월 10~11, 10월 17~18일 오후 1시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종이를 이용해 알록달록한 과일 등을 만들어보는 키즈아트클래스 '페이퍼 프루츠 만들기'를 진행한다.

또 작품을 감상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감상평을 적는 '50자평, 나도 평론가'도 마련해 전시 아트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문의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송정민 작 '산대'

석림회 '여백으로 떠나다' 전

10월 8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석림회(회장 송정민)가 '여백으로 떠나다'를 주제로 10월 8일까지 광주 북구청 갤러리에서 네번째 전시회를 연다.

지난 2011년 결성된 석림회는 박종석 한국회가의 호남회화연구소에서 수묵화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시·서·화의 수묵사상과 호남회화의 남종화 정신을 승계하고 있다. 회원 20여명이 모여 '수묵의 사상과 역사', '동양화 구도론', '사군자' 등 이론수업과 함께

매주 1회 실기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송정민, 박종석, 남상대, 오우중, 김원수, 심희진, 변정화, 서규중, 신미경, 김선영, 이우길, 천영숙 등 12명의 회원들이 한국화 24점을 선보인다.

송정민 '산대', 오우중 '일월경 동조 여래입상', 서규중 '낙서', 김선영 '청춘' 등 회원들이 일상에서 접한 각각 다른 소재를 인문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수묵화가 출품됐다.

문의 062-510-15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多才多藝 함평 출신 김순곤을 아시나요

'컬러링 아프리카'



♫ 히트곡 작사자
조용필 '고추잠자리' '나는 너 좋아'
나미 '인디언 인형처럼'
서울의 달 주제곡 '서울 이곳은'
최유나 '흔적'
김완선 '나만의 것'



컬러링북 작가
필명 '고니'
컬러링 카페
요정의 숲
메모리스
컬러링 아프리카



북 디자이너
'정도전'
'사도세자'
'가짜 이중섭'

"남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귀여운 웃음이 좋단다. 그러나 이제는 안그래요. 나만의 비밀이 생겼어요. 하지만 나는 너 좋아, 사랑일지도 몰라."

전화로 들려오는 컬러링이 익숙하다. 자연스레 따라 부른다. 가수 조용필의 히트곡 '나는 너 좋아'다. 최근에는 KBS 드라마 '프로듀사'에도 삽입돼 인기를 끌었다.

전화 속 주인공은 함평 출신 인기 작사가 김순곤(57)씨.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등 1000여곡을 작사한 스타 작사자다. 서울 녹음실에서 작업중인 그와 어렵사리 전화 연결이 됐다.

함평 출신인 김 씨는 고등학교 때 이미 시집을 발간할 정도로 글 쓰는 데 발군이였다. '가왕' 조용필과 인연을 맺은 건 스물 한살 때다. 당시 동양방송이 주최한 '고운노래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이 '고추잠자리'였다. 서울로 올라가 음악 활동을 하며 많은 노래의 가사를 썼다. 이후 광주로 내려와 음악그룹 '꼬두메'를 만든 게 1980년 중반이다. "당시 전남대학교 앞 음악 다방에서 DJ를 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자연스레 음악하는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게 됐죠. 우리도 음악 모임을 만들어보자 한 게 '꼬두메'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정희(한보리)와 둘이서 출발했고, 이후 배정희와 문학소년이었던 여운수 등이 합류했습니다. 포크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며 행복한 시절을 보냈죠."



대학 때부터 광주~서울 오가며 활동 '꼬두메' 만들기도
등록 가요 1000곡 넘어...KBS '불후의 명곡' 녹화

그에게는 이름이 또 하나 있다. '고니(Gony)'다. 대학에서 산업미술을 전공한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컬러링 북 작가로도 활동중이다. 첫번째 컬러링 북 '컬러링 카페'가 3일만에 초판 매진되면서 이후 '요정의 숲', '메모리스', '컬러링 아프리카' 등을 내놓았다. 컬러링북은 영국 작가 조해너 배스포드의 '비밀의 정원'이 인기를 얻으면서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미술 심리 치료에 관심이 많았어요. 치매 노인들의 동심을 깨워주는 방법을 궁리하다 어렸을 때 즐겁게 했던 색칠 그림책을 구상하게 됐죠. 그즈음 '비밀

의 정원'이 출간됐어요. 당시에는 한국 작가들이 만든 컬러링 북이 없었어요. 내가 한번 해보자 싶었죠. 국내 작가 중 연달아 4권을 펴낸 사람은 저 말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는 오래 전부터 북 디자이너로도 활동중이어서 책을 내는 게 낯설지만은 않다. 김 씨는 '정도전'으로 유명한 이재운 작가와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갖고 그가 펴낸 역사 소설 '정도전', '사도세자' 등을 비롯해 자기계발서 등 모두 200여권의 책을 디자인했다.

그는 이재운 작가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화려한 디자인과 소설이 어우

러진 '보는 소설'을 펴낸 것이다. 한달 후 출간 예정인 이재운 작가의 신작 '가짜 이중섭'(책이 있는 마을)은 글로 읽는 것을 넘어 화려한 편집과 구성으로 '보는 책'을 표방한 독특한 책이다.

발라드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김 씨는 지난 21일 KBS '불후의 명곡' 녹화도 마쳤다. '고추잠자리', '인디언 인형처럼', 드라마 '서울의 달' 주제곡이었던 '서울 이곳은', 최유나의 '흔적', 박강성의 '문밖에 있는 그대', 김완선의 '나만의 것' 등을 인기 가수들이 불렀다.

"오디션 프로 등이 늘어나면서 제 노래 끊임없이 언급돼요. 며칠 전에도 '북면가왕'에서 '인디언 인형처럼'이 나오더군요. 또 젊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다시 불려집니다. 핑클이 '인디언 인형처럼'을 리메이크 했었고 '응답하라 1994' OST에서는 로이킴이 '서울 이곳은'을 다시 불렀죠."

저작권료가 만만치 않겠다는 말에 그는 '슬값과 생활비'로 다니고자 웃었다.

그는 여러가지 일을 하지만 녹음실에서 가수들 앨범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했다.

지난 2009년에는 영화 '워낭소리' 사진집 제작에 참여해 책자에 실린 글을 썼고, 주인공 최원국 할아버지의 아들인 트로트 가수 최명진을 데뷔시켰다. 현재 진행중인 작업은 한류스타 김수현의 아버지인 록밴드 '세븐 돌핀스' 보컬 출신 김중훈씨의 앨범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를, 전 중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